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 輸入의 自由化, 市場의 開放 등 劃期的인 開放措置를 推進하고 있으며, 日本이 從來의 ONE SET 主義를 바꾸어 韓國과의 國際적인 水平分業을 積極적으로 이루어 나간다면 韓日兩國의 共同利益의 擴大와 發展에 寄與하리라는 點을 強調하였다.
2. 大韓民國政府當局으로부터 「自力成長위에서의 福祉社會建設」을 指向하여 1987년부터 實施되는 第6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의 重點課題와 主要施策에 對한 說明이 있었고, 日本側은 韓國이 劃期的인 開放化 및 國際化를 推進하여 均衡이 잡힌 福祉社會의 實現을 指向하고 있는 것은 兩國經濟協力關係의 더한층의 發展을 위해 歡迎할만한 것이라고 評價하였다.
 3. 下記 4個專門委員會合同會議의 報告가 있었던 바 모두 異議없이 採擇되었고, 各委員會의 活動이 한층 더 活潑化되고 있음을 兩側이 모두 評價하였다.
 - (1) 第13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合同會議(1986年 2月, 日本國·熱海)
 - (2) 第11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合同會議(1985年 6月, 韓國·雪嶽山)
 - (3) 第6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合同會議(1985年 11月, 韓國·서울)
 - (4) 第4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合同會議(1986年 3月, 韓國·서울)
 4. 이제까지 韓日經濟協력이 韓國의 5個年計劃의 重點課題에 맞춰서 推進되어온 點에 비추어 日本側은 兩國經濟協力の 實效를 거두기 위해 來年부터 實施되는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에 對한 調査團을 派遣할 것을 提案하였고, 韓國側은 同計劃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韓日經濟協력이 不可缺少하다하여 同調査團에 對한 協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約束하였다.
 5. 第17回 合同會議에서의 合意에 따라 訪韓國投資環境調査團의 派遣이 1986年 1월에 實施되어, 韓國側의 官民一體의 協力에 힘입어 對韓投資를 더욱 擴大해 나가는데 多大한 成果가 있었던데 對하여 日本側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한편 韓國側은 1986年 4월에 東京, 浜松, 廣島, 福岡에서 開催되는 韓國의 外國人投資環境說明會가 成功裡에 끝날 수 있도록 關係機關의 協力を 要請하였고, 日本側은 가능한 限 協力할 것임을 約束하였다.
 6. 兩側은 部品開發協力및선의의 交流가 韓國에서 急先務로 꼽히고 있는 部品産業의 發展을 促進하고 아울러 兩國間의 水平分業을 加一層 進展시키는데 있어서 極히 重要하다는 點에 對해 認識을 같이하고 于先 日本側은 今年 가을을 目標로 韓國의 部品産業의 實態를 直接 把握하기 위한 調査團의 派遣을 提案하였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全적으로 同意하고 같은 類의 調査團을 日本國에 派遣하겠다고 表明하였다.

兩側은 앞으로 相互協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約束하였다.
 7. 兩側에 設置되어 있는 技術協力斡旋窓口に 關해서는 그 成果를 올리기 위해 보다 効果적인 方法과 內容을 再檢討하여 그 活性化를 꾀할 것에 合意하였다.
 8. 兩國政府間의 合意에 依해 1984年 11월부터 3次에 걸쳐 實施되어온 韓國技能工의 日本에서의 研修가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데 對해 韓國側은 受容企業 및 關係機關에 깊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또한 이제까지의 實績에 비추어 韓國側은 '86年度에는 보다 많은 技能工派遣의 實現을

要請한데 對해 日本側은 民間으로서 可能한 限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約束하였다.

그리고 研修成果를 더욱 提高시키기 위해 兩側이 協力하여 諸般問題의 改善에 힘쓰기로 合意하였다.

9. 韓日·日韓 兩市場協議會를 窓口로 하여 1985年 4회에 걸쳐 派遣된 訪日輸出促進團이 큰 成果를 올린데 對하여, 韓國側으로부터 謝意가 表明되었다. 韓國側은 關係機關의 더한층의 協力을 要請하였고, 日本側은 1986年에 5回 同輸出促進團을 받아들여 積極 協力키로 하였다.
10. 韓國側은 昨年 여름 韓日·日韓國交正常化 20周年 記念事業으로서 實施되었던 韓國大學生들의 訪日이 兩國關係의 將來를 짚어질 靑少年들의 相互理解와 友好·親善을 深化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큰 成果를 거둔데 對해 謝意를 表明하였다. 이에 따라

兩側은 向後 靑少年 相互交流를 더욱 活性化시켜 나가는 方案을 檢討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1. 1964年의 東京올림픽의 成功이 그 後의 日本經濟의 힘찬 發展을 가져온 原動力이 된 經驗에 비추어 1988年의 서울올림픽의 成功이 90年代의 韓國經濟의 飛躍的인 發展을 促進시킬 것을 期待하여 兩側은 서울올림픽을 成功으로 이끌기 위해 民間레벨에서 協力하는 方案을 檢討하기 위한 PROJECT TEAM을 兩事務局에 設置할 것에 合意하였다.
12. 다음 會議는 來年 봄 韓國에서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다.

1986年 4月 11日

韓國代表團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團長 杉 浦 敏 介

第 19 回 共同聲明(1987年)

第19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7年 4月 20日과 21日의 兩日間, 大韓民國 濟州道에서 開催되어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116名, 日本側에서는 杉浦敏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110名의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이번 會議는 처음으로 夫人들도 參加하고 合同分科會 方式을 採擇하였고 또한 極히 友好的인 분위기속에서 熱意있는 討議가 거듭되어 多大하고도 알찬 成果를 거두었다.

우선 雙方은 韓國이 第6次經濟社會發展5

個年計劃을 지렛대로 「經濟의 先進化」를 推進하고, 한편으로 日本經濟가 더욱 成熟化됨에 따라 兩國의 經濟關係는 더욱 그 깊이와 幅을 增大하고, 加一層의 發展을 이룩해 가리라는 展望을 함께 하였다. 이러한 展望하에 오늘날 世界經濟가 어려운 構造調整時代를 맞고있는 가운데, 이와같은 調整을 圓滑하게 推進하기 爲해 韓日兩國이 遂行해야할 役割도 날로 增大되고 있으며 兩國의 繁榮 및 世界經濟의 秩序있는 發展을 爲해 協力하여 가는것이 重要하다는 點에 共通된 認識을 가졌다.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1회~42회)

이와같은 共通認識하에 兩國間の 産業協力促進, 貿易의 擴大均衡, 相互信賴關係強化를 爲한 人的交流의 活性化等を 推進하기 爲해 訪日輸出促進團, 訪韓中小企業協力및선, 訪日部品開發協力및선등의 派遣, 韓國技能工研修의 擴大, 靑少年交流等の 實施에 對해 原則적으로 合意하였다.

1. 下記 4個專門委員會의 活動에 關해 合同會議을 中心으로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없이 採擇되어 兩側이 모두 各 專門會 活動이 加一層 活性化되고 있음을 높이 評價하였다.

- 1) 第14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1987年 2月 韓國 서울)
- 2) 第12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6年 4月 日本 御殿場)
- 3) 第7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1986年 10月 日本 東京)
- 4) 第5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7年 3月 日本 東京)

2. 開會式에 이어 雙方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韓國側은 世界的으로 通貨摩擦, 貿易摩擦이 深化되고 있는 오늘날 어느 一國만이 巨額의 貿易黑字를 累積시키고 있는 것은 許容되지 않으며 自由主義 經濟의 安定과 繁榮을 維持하기 爲해 日本은 大局의인 觀點에 立脚하여 果敢한 市場開放과 技術協力を 더욱 推進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日本側은 國際經濟環境이 크게 變化하여가는 가운데 21世紀를 向한 새로운 構造問題에 直面하고 있는 兩國은 相互補完의인 協力關係를 더한층 深化시키고 自國의 課題를 克服해감과 同時에 環太平洋의 一翼을 擔當함으로써 多極化하는 世界經濟의 發展에 貢獻하기 爲해 世界的인 視

野에서 서로 協力해 가는 것이 重要하며 그러한 새로운 協力關係樹立을 爲한 素地가 整備되어 가고 있는 點을 強調하였다.

3. 第1分科會에서는 우선 恩化強勢가 進行되고 있는 가운데 産業調整의 一環으로서 國際分業을 促進시키고 있는 日本은 製品生産國으로부터 製品開發國 즉 技術輸出國으로 移行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製品生産國과의 産業協力の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韓國으로서도 効果의인 韓日産業協力を 通하여 兩國間の 貿易不均衡을 是正하고 貿易構造의 高度化에 拍車를 加해야 한다는 共通認識하에 雙方에서 投資·技術協力에 關한 主題發表가 있었다. 이 主題發表에 依據하여 雙方은 보다 활발한 意見을 交換하였다.

4. 第2分科會에서는 韓國貿易不均衡問題의 背景에는 構造的인 要因이 있기는 하나 韓國側에 있어서 이 不均衡의 是正이 經濟政策의 最優先 課題의 하나가 되어 있다는 點에 비추어 兩國의 發展과 繁榮을 基本으로 삼으면서 擴大均衡을 指向한 協力を 더욱 強化해야 한다는 共通認識下에 韓國側은 加一層의 産業·技術協력과 日本의 市場開放促進을 要請하였다.

5. 第3分科會에서는 우선 지난 10月 日韓經濟協會가 派遣한 「訪韓國部品開發協力및선」에 關한 報告가 있었고 部品開發協力促進에 關해 內實있는 意見을 交換함과 아울러 海運協力の 增進 및 人的交流擴大等に 關해서도 意見을 나누었다.

6. 以上の 3個分科會를 通해서 많은 提案이 있었고 下記事項들이 決定되었다.

ㄱ) 兩國政府間 合意에 依據하여 1984년부터 3年間に 걸쳐 實施되어온 韓國技能工의 日本에서의 研修가 多大한 成

과를 거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 韓國側으로부터 受容企業 및 關係機關에 대해 깊은 謝意가 表明되었다. 韓國側이 1987年度에도 보다 많은 技能工 派遣을 要請한데 대해 日本側은 民間레벨에서 可能な 限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고 約束하였다.

ㄴ) 韓國側이 韓獨·韓英技術移轉세미나가多大한 成果를 거두었음에 비추어 韓日技術移轉세미나의 開催를 提案한데 대해 日本側은 關係機關과 協議할 것을 約束하였다.

ㄷ) 日本側은 이제까지 2회에 걸쳐 實施되어온 訪日投資誘致團의 派遣이 對韓投資를 促進하는데 커다란 成果를 거두어온 사실에 비추어 今年도 그 實施를 提案한데 대해 韓國側은 이를 派遣하는 方向으로 關係機關과 協議할 것을 約束하였다.

ㄹ) 韓日·日韓兩市場協議會를 窓口로 하여 1985년부터 繼續實施되고 있는 訪日輸出促進團의 派遣이 韓日貿易不均衡改善에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는데 비추어 韓國側으로부터 今年에도 8회에 걸쳐 派遣하겠다고 要請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작년 가을의 兩國頂上間의 合意에 依據하여 今年 3월에 派遣되었던 「訪韓國經濟交流促進밋션」이多大한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한 韓國側의 配慮에 대해 日本側으로부터 深甚한 謝意가 表明되었으며 韓國側 要請에 對해서는 積極的으로 協力하겠다고 約束했다.

ㄱ) 작년 10월에 派遣된 「訪韓國品目開發協力밋션」이多大한 成果를 올린데 對

해 日本側으로부터 謝意가 表明되었고, 今年에 韓國側이 派遣할 「訪日部品開發協力밋션」에 積極的으로 協力하겠다고 約束했다.

ㄴ) 韓國의 中小企業育成 및 強化가 第6次 5個年計劃의 重點課題의 하나가 되고 있는 點에 비추어, 日本側이 韓日兩國의 中小企業間의 協力을 促進함을 目的으로 「訪韓中小企業協力밋션」을 派遣할 것을 提案한데 대해 韓國側은 積極的인 協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約束하였다.

ㄷ) 1985년부터 實施되고 있는 韓國大學生의 訪日이 兩國關係의 將來를 짚어질 靑少年間의 相互理解와 友好 親善을 深化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有意義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韓國側이 同交流事業의 持續的인 實施를 提案한데 대해 日本側은 今年도 韓國大學生의 訪日을 歡迎함과 아울러 이를 받아들일 것에 同意하였다.

7. 大韓民國 政府當局으로부터 「韓日兩國의 經濟構造變化와 새로운 經濟協力の 展開 方案」이라는 題目으로 韓日兩國經濟의 展望과 構造調整下에서의 相互協力の 重要性에 關해 說明이 있었으며 兩國의 關心을 끌었다.

8. 다음 會議는 來年 봄 日本에서 開催하기로 合意하였다.

1987年 4月 21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 團長 杉浦 敏介

第 20 回 共同聲明(1988年)

韓國代表團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團長 杉 浦 敏 介

第20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8年 4月 7日, 8日 兩日間 日本國石川縣金澤市에서 韓國側으로부터는 朴泰俊 團長外 96名, 日本側으로부터는 杉浦敏介 團長外 133名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冒頭에 日本側으로부터 盧泰愚 新任大統領의 就任 및 新內閣 出帆에 대해 慶賀의 뜻이 表明되었다.

1. 全體會議에서는 4個專門委員會의 活動內容이 報告되어 모두 異議없이 承認되었다.

(1) 第15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1988年 2月, 日本・長崎)

(2) 第13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7年 6月, 韓國・慶州)

(3) 第8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1987年 10月, 韓國・束草)

(4) 第6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8年 3月, 韓國・서울)

아울러 「2000年代에 있어서의 韓日・日韓經濟協力の 方向」에 關한 共同研究成果의 發表가 있었다.

2. 이어 貿易增進, 投資・技術協力, 經濟・一般協力等 3個分野의 合同分科會에서 各各 意見發表가 있었고, 以下の 事項에 대해 認識을 같이 했다.

(1) 韓日經濟關係는 近年에 와서 順調로운 發展을 보이고 이은바, 이제 兩國은 보다 開放된 同伴協力關係를 構築하여 共同的 利益을 追求함과 아울러 아시아・太平洋地域뿐만 아니라 世界의 平和와 繁榮에 貢獻해야할 時代를 맞고 있다.

(2) 兩國間의 오랜 懸案이었던 貿易不均衡 問題는 雙方의 努力으로 漸次 改善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바, 保護貿易主義 혹은 世界經濟의 블록化 움직임이 高潮되고 있는 가운데 健全한 世界貿易秩序의 維持를 위해서도 兩國은 繼續 協力함으로서 擴大均衡을 指向하는 貿易增進을 위한 努力을 기울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3) 最近 兩國間의 投資・技術協力は 다시 活潑化되고 있으며, 水平的 相互補完的 分業關係가 進展되어가고 있는바, 適切한 方向으로 推進하여 兩國經濟의 發展에 寄與케하기 위해서는 部品産業과 中小企業等 底邊基盤分野에 있어서의 協力關係를 強化할 必要가 있다.

(4) 앞으로 韓國에서 經濟의 民主化, 自由化, 國際化가 進展됨에 따라 兩國經濟關係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하기 爲해 金融, 證券, 保險, 流通, 運輸等 幅넓은 分野에서의 相互協力の 增進이 要請된다.

(5) 새로운 時代에 있어서의 韓日關係의 構築을 爲해 兩國經濟人뿐만 아니라 널리 國民의레벨에서 相互理解와 信賴關係를 보다 深化시키기 爲해 여러 形態의 人的交流 또는 文化交流 등의 促進이 要請된다.

3. 3個合同分科會에서 많은 提議가 있었으며, 別添과 같은 事項에 合意하였다.

4. 다음 會議는 1989年 봄 韓國에서 開催키로 하였다.